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 생산에 중점



▲ 차진우 지부장

아산산란계지부(지부장 차진우)가 지난 7월 12일 아산시 둔포면 소재 둔포농협 및 지부 사무실에서 지부설립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둔포농협에서 개최된 지부설립 및 취임식에서는 대한양계협회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 현광래 대전충남양계조합장, 아산시 박종원 산업경제국장, 김동영 축산과장, 현인배, 이한욱 시의원, 최성천 본회 이사 등 외부인사는 물론 회원 및 관련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고는 새롭게 지부를 설립하고 활동에 들어간 아산산란계지부를 방문하여 한미 FTA 등 어려움에 처한 채란업 현실 속에서의 지부활동 및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물류의 중심지 아산

아산시는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농업과 축산이 발달되었으며, 최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전철 등이 인근에 들어오면서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등 물류의 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산시에는 총 290여 농가가 양계를 하고 있으며, 이중 산란계 69농가(143만수), 육계 220농가(220만수)가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아산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아산시에서 향토농특산물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안전성과 품질면에서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

아산산란계지부의 재도약

아산지역중 산란계 밀집지역을 꼽으라면 둔포면과 음봉면이고 다음이 신창면이다. 아산산란계지부는 지난 2000년도에 이미 결성되어 활동을 해왔으나 도시화 여파와 결속력 부족 등으로 와해되면서 활동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지부의 탄생은 새로운 목표를 향한 아산 산란계지

부 회원들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차진우 지부장은 지역은 물론 대전충남양계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계인들의 권익을 대변하였고, 모임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지부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아산산란계지부는 지난 5월 14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 25일 34명의 회원이 모여 지부설립에 동의하면서 6월 18일 본회로부터 최종 지부설립 인가를 받았다. 3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아산산란계지부는 120만수의 사육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1년 사료소비량만 해도 4,320톤에 달한다.

차진우 신임 지부장은 취임당시 취임사를 통해 “농축산 관련 산업이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아산 지역 양계인들의 결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양계 산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 생산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 지부장은 “충남 지역 축산 관련 기관 단체간 상호 정보 교류는 물론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등으로 한미 FTA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기대

아산시에서는 금년 양계분야에 3억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환경개선 등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시 김동영 축산과장은 “아산시산란계지부가 설립되면서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산란계 농가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업계획을 올리면 검토하여 반영할 뜻을 전했다.

지금까지 양계분야에는 시설과 환경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가장 지원폭이 큰 분야는 미



▲ 사무실에서 개최된 헌판식 장면

생물 및 분노 발효제제 지원사업이며, 단열처리, 환공급, 안개분무시설, 자화수기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고품질 계란 생산기지 구축

아산산란계지부는 차진우 지부장을 필두로 충무를 맡은 장석기 씨와 재무를 맡은 이응철 씨가 모임을 보좌하며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해 가고 있다.

아산은 지난해 12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공무원이 방역활동중 사고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다. 모든 양계인들은 철새가 북상할 때까지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따라서 금년에도 시와 연계하여 조직적인 방역활동에 임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농가 자체적인 방역홍보와 활동에 주력하여 AI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계획이다.

아산산란계지부 설립은 그동안 도시화 여파에 의해 조금은 소외되었던 아산지역 양계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농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과 고품질 계란 생산 공급기지 구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

